

勞 動 經 濟 論 集
第24卷 (1),2001.3, pp. 231 ~251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이 현 송**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삶의 만족 간에 맺는 관계에 대하여 기존에 대립되는 두 가지 이론, 즉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을 대비하여 분석해 보았다.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이며 체감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교육수준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소득에서 우월함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비교이론의 가설은 제한적으로 뒷받침되었다. 한편,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이 높을 경우 현재의 동일한 소득수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삶에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또 다른 비교이론 가설은 본 연구에서 부정되었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욕구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넘어서서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가 나아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삶에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 주제어: 소득, 삶의 질, 만족도

투고일: 2001년 1월 8일, 심사일: 1월 15일, 심사완료일: 2월 22일

*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hyunslee@office.hoseo.ac.kr)

I. 들어가는 글

우리는 모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¹⁾ 돈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돈과 만족스러운 삶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0.1~0.2 정도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만 존재한다고 한다(이현승, 2000; Schyns, 2000; Diener et al., 1993, 1995; Andrews and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그렇다고는 해도 여타 객관적인 조건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방하남, 1999).

본 연구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산업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갖는 개발도상국에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소홀히 다루는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은 나라들에서 소득과 만족도 간의 관계는 소득이 높은 나라들에서의 그 관계보다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이현승, 2000; Schyns, 2000; Tang, 1999; Gitmez and Morcoi, 1994), 이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소득이 높은 나라들과 낮은 나라들 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논문은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가 고소득 선진산업국의 사례에 치중되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간략

1) 만족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은 동의적 개념은 아니다. 만족스러운 경우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가 인지적 판단의 영역임에 비하여 후자는 감정의 영역이다. 무언에 관하여 만족할 수는 있지만 무언에 관하여 행복하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즉 삶의 만족도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구분 및 관련 연구들에 관하여는 Diener(1999)를 참조할 것.

2)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삶의 여러 객관적인 조건 중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육체적 건강, 원만한 가족관계, 어느 정도의 소득, 질 높은 직업생활 등이 제시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Diener, 1999).

히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분석모델 및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과 함께 연구 결과의 이론적 함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³⁾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어 있다. 하나는 삶에 대한 만족을 귀납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접근이다(Campbell, et al., 1976; Shin et al., 1983). 이 접근에 따르면 사람들은 삶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에 대하여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며,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은 삶의 개별 영역의 객관적 조건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건강이 좋을 때 건강 영역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고, 소득이 많을 때 물질 영역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며, 또 가족관계가 좋을 때 가족 영역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등 이러한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접근이다.

두 번째 접근은 삶에 대한 만족을 연역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접근이다(조명환·차경호, 1998; Diener, et al., 1993).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도 만족 혹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역적 접근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 혹은 행복과의 관계 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접하여, 기존의 귀납적 접근으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반발에서 출발한다. 이들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통제감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

3) 삶의 만족도와 관련을 맺는 여러 객관적인 조건들, 예컨대 소득, 직업, 가족, 건강, 주거환경 등 중에서 본 논문은 소득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이는 여타의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인 주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자료의 제약에 기인하는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조건과 심리적 성격 특성 간에는 인과적 영향을 상호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일반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모델을 절충하는 모색을 하고 있기도 하다 (Feist, et al., 1995). 예컨대 외적인 조건에 쉽게 만족하는 성향을 갖는 성격 기질은 상대적으로 각박하지 않은 환경적 조건의 결과일 수 있으며, 거꾸로 객관적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낙관적 기질의 사람들도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등의 설명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는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귀납적 접근을 선호하며, 감성적인 영역인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연역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귀납적 접근을 수용하여 객관적 조건이 주관적 만족도와 맺는 관계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삶의 물질 영역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는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소득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을 하는 욕구이론(need theory)으로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절대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다른 하나의 이론은 소득은 자신의 과거나 미래의 희망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판단의 결과에 따라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비교이론(comparison theory)이다.

각각의 이론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먼저 욕구이론은 Maslow의 욕구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제일 밑의 단계로 하여 안전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욕구 만족의 서열체계를 갖고 있는데, 소득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욕구체계에서 하위의 욕구일수록 소득이 많으면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상위의 욕구로 갈수록 소득과 욕구 충족과의 연관성은 옅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이론의 대표자인 Veenhoven(Veenhoven, 1991; Veenhoven and Ehrhardt, 1995))도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비례적 관계보다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체감하는 곡선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곡선적 관계는 직관적으로도 쉽게 이해되고 많은 경험연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이므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이론이다.

비교이론은 어떤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자신의 현 상태와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과거가 현 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며, 두 번째는 자신이 설정한 미래의 기대이며, 셋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비교의 기준이 된다. 비교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현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의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만족하는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첫째의 기준, 즉 자신의 과거와 비교한 만족의 경우 과거보다 지금의 소득이 높을 경우 만족하게 되며, 두 번째의 기준, 즉 자신의 미래의 기대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수록 현 상태에 만족하게 되며, 셋째의 기준, 즉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보다 낮은 소득을 갖고 있을수록 현 상태에 만족하게 된다.

이 비교이론은 상식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실제 경험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비교이론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Easterlin(1975, 1995)은 1945~70년까지 미국인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그간 실질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으며, 국가간 비교에서도 일인당 소득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개별 국가에서만 횡단면적으로 소득과 만족도 간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Easterlin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월할 경우 만족을 느끼는 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두가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잘살게 되므로 비교를 통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국민이 반드시 평균소득이 낮은 국민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이 상이한 국가들 간에 삶에 만족도가 유사한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삶의 질에 관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해온 Diener et al.(1993)는 비교이론의 두 가지 기준 영역인 사회적 비교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교 및 미래의 기대에 대비한 비교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사회적인 비교로는 동일한 소득수준에 대하여 살고 있는 지역이 부자 동네인지 가난한 동네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적게 받은 사람인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검토했으며, 과거와의 비교로는 자신의 과거 소득이 지금보다 낮은지 혹은 높은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어떤 비교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소득의 절대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상대적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외의 결과에 접하여 그는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사람들이 비교에 의하여 만족을 느낀다는 이론이 틀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비교의 기준에 대한 설정이 사람들이 실제 비교하는 기준과 달리 설정되었을 가능성, 세 번째는 사람들이 비교기준과의 객관적 소득 격차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불일치(perceived discrepancy)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관적으로 인식한 불일치란 주관적으로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 혹은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본인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 여부보다는 이러한 격차를 주관적으로 적절하다고 파악하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Michalos(1985)는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는 이러한 주관적으로 인식한 불일치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검토한 삶의 만족을 귀납적 과정으로 볼 것인가 혹은 연역적 과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과 연결된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연역적인 과정이라면 소득의 규모와 상관 없이 삶에 대한 만족은 자체의 결정요인을 갖게 되므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가능하다. “돈을 더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이다.

지금까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을 ‘주로’ 귀납적 과정 혹은 연역적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극단적으로 하나의 과정만이 타당하며 다른 과정은 완전히 그릇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욕구이론은 기본적으로 귀납적 과정의 입장에서 있지만, 객관적 조건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비교이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연역적 과정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이 맺는 관계에 대하여 앞에서 검토한 이론적 쟁점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적용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앞의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삶의 만족에 관한 귀납적 접근을 수용한다. 이러한 귀납적 접근에 따르면, 전반적 삶에 만족하기 위하여는 물질적 영역의 삶에 만족해야 하며, 물질적 영역의 삶에 만족하기 위하여는 소득수준이 높아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소득수준이 높으면 물질적 삶에 만족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는 논리이다.⁴⁾

만족을 이와 같이 귀납적 과정으로 파악할 경우, 소득이 전반적 삶의 만족과 맺는 관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욕구이론에 따르면 횡단면적으로 볼 때 소득이 높으면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 둘 간의 관계는 체감의 관계로서 곡선적 관계를 그릴 것이다. 욕구이론에 따를 경우 종단면적으로 보아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한편 비교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앞에서 검토한 비교의 세 가지 기준, 즉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래의 기대, 주변 사회환경과의 비교 중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두가지 기준에 관하여서만 검토한다. 즉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 및 주변 사회환경과의 비교에 관하여 분석한다.

먼저 과거와의 비교 가설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에서도 과거와 현재 상태 간의 비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과거에 비하여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과거와 비교하여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람과 비교하여 동일한 현재 소득수준에서도 더 만족할 것이다. 비교의 기준인 과거보다 현재의 소득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수록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변 사회환경과의 비교 가설에 따르면 소득 이외의 다른 중요한 사회적 기준에서 주변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경우 이로 인한 만족은, 같은 소득수준으로 이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설로서 같은 교육수준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주는 만족에 더하여 이러한 비교로 인한 추가적 만족을 얻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 따른 사회적 지위 차이가 매우 크므로 만일 비교로 인한 추가적 만족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다른 어느 사회적 기준보다도 교육의 경우가 비교로 인한 만족 혹은 불만족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종간의 격

4) 방하남(1999)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삶의 각 구성 영역, 예컨대 소득, 일, 가족, 건강 등의 만족을 측정하는 측정 모델을 통해 전반적 '생활만족'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을 포착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만족한 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본 연구와 같이 단일항목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질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Diener(1999)에 따르면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인 행복도의 경우 이러한 단일항목 질문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차나 혹은 거주지역간의 차별이 매우 크므로 이를 비교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비된다(Diener et al., 1993).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과 1999년에 수집한 2차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종단면적 분석을 위하여 양 연도에 모두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리(well-being)의 단위는 가구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도 소득의 개념은 응답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구성원들 모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및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기타 모든 소득의 합계인 가구소득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개인이 벌어들이는 임금 혹은 소득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가구소득 전체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 규모 및 이에 대한 만족을 측정할 경우 가구주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가구주가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므로 '가족의 빵을 벌여오는 사람'이 느끼는 우리 가족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우리 가족의 물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부모와는 준거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 보지 않았으므로 돈 혹은 물질적 풍요 수준에 대한 개념 자체도 부모와 다를 수 있다.⁵⁾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소득 및 이에 따른 복리의 성격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가구주로 제한하였다.⁶⁾ 가족의 물질적 삶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에게 가족의 물질적 삶의 수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물어 봄으로써 소득을 측정하는 단위(가구)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위(개인) 간의 불일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⁷⁾ 이렇게 가구주만을 선별했을 때 최종적으로 총 4,322명의

5) '소득에 대한 만족'보다는 '물질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이 본 연구에 보다 더 타당한 개념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 때문에 물질적 삶의 영역에 대한 객관적 조건 및 이에 대한 만족도 측정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물질적 삶에 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취급하기로 한다.

6) 이러한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40대의 가구주와 10대의 가구원을 동일한 분석단위로 하여 소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경우, 두 집단 간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 하여도 소득의 의미가 다르므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는 점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 Diener를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Diener, 1995, 1993; 조명한·차경호, 1999)은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소득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상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대한 선별기준은 쉰즈(Schyns, 2000)의 연구를 따랐음을 밝힌다.

7) 이는 물론 가구주가 답변하는 만족도가 가족 전체의 만족도를 대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가구주가 느끼는 만족도와 가구소득 간의 측정단위의 불일치 문제가 가구구성원

사례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및 소득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 삶 및 소득에 대한 만족을 묻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배경 조건에 대한 통제변수로서 연령, 성별,⁸⁾ 교육수준, 취업상태를 포함시켰다.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중퇴, 대졸 이상의 네 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취업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⁹⁾

앞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횡단면 분석으로 다음의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LS = a + b_1 \ln(I) + b_2 C + \varepsilon \dots\dots\dots (1)$$

$$LS = a + b_1 \ln(I) + b_2 Ed + b_3 DIF + b_4 C + \varepsilon \dots\dots\dots (2)$$

여기에서 $DIF = (I - I_g) / I_g$.

LS: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ln(I)$: 가구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

Ed: 교육 가변수

I_g : 동일 교육수준 및 연령대 집단의 평균소득

DIF: 비교집단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소득격차의 비율

C: 통제변수들(교육, 성별, 연령, 근로 여부)

위의 식 (1)은 소득 수준이 전반적 삶에 미치는 효과가 체감하여 곡선적 관계를 그린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식에서 b_1 이 양의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하여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위의 모델의 정합도가 높으면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간에는 체감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느끼는 만족도와 가구소득 간의 측정단위의 불일치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선택한 차선책임을 밝힌다.

- 8) 가구주의 성별은 결혼 지위를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기혼남성이 가구주가 되며, 여성 가구주의 경우 유배우 결혼상태가 아닌 이혼이나 사별 등의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변수를 포함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결혼 지위변수를 별도의 독립변수로 포함하지 않는다.
- 9) 회귀식에서는 각각 여성, 고졸 미만, 비경제활동을 준거 범주로 하여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위의 식 (2)는 교육의 비교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 교육 및 연령대 집단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소득격차 항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이 식은, 소득 및 교육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주위에 유사한 연령 및 교육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소득이 더 높은 경우 이러한 상대적인 우월함으로 인한 만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식에서 b_3 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이러한 비교로 인한 만족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동일 교육 및 연령대 집단의 평균소득과의 격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중퇴, 대졸 이상의 네 범주로 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9세 이하, 30~44세, 45~59세, 60세 이상의 네 범주로 하여 교육 4범주와 연령 4범주를 교차하여 만들어진 총 1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교육과 연령으로 구분한 집단과 개개인간의 소득격차의 측정은 상대적 우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 속한 교육연령 집단의 소득 평균에 대비한 상대적인 격차의 비율로 계산한다.

중단면 분석을 위하여는 한 시점 뒤지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과거와 비교한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LS_t = a + b_1 LS_{t-1} + b_2 \ln(I_t) + b_3 \Delta I + b_4 C + \varepsilon \dots\dots\dots (3)$$

$$\text{여기에서 } \Delta I = (I_t - I_{t-1}) / I_{t-1}.$$

위의 식 (3)에서 b_2 는 소득이 만족도의 증가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b_3 는 과거와 비교한 소득 변화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절대 소득규모의 차이에 따른 소득 변화폭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ΔI 는 두 기간 사이의 소득 변화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두 시기 간에 불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으로 측정한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소득과 소득 만족 및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가구주를 중심으로 선정한 총 4,322명의 분석 대상자의 특성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85.5% 여성이 14.5%의 구성이며, 평균 연령은 47.8세이다. 학력 분포는 고졸 미만자가 전체의 39.9%, 고졸이 35.7%, 고졸보다는 높고 대졸 미만이 8.3%, 대졸이상이 16.1%의 분포를 보인다. 혼인상태를 보면 전체의 80.6%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이며, 미혼이 5.5%, 사별이 10.2%, 이혼 혹은 별거가 3.6%를 차지한다. 취업상태별로 구분하면 취업자가 75.1%이며, 비취업자는 4.4%이고 나머지 20.5%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표 1〉 인구특성에 따른 소득 및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소득만족	전반적 삶에 만족
전 체		2.86	2.48
성별	남성	2.51	2.91
	여성	2.27	2.57
연령	18~34세	2.65	3.06
	35~59세	2.47	2.86
	60세 이상	2.35	2.69
결혼지위	미혼	2.63	2.85
	유배우 결혼	2.51	2.92
	사별	2.23	2.52
	이혼, 별거	2.09	2.35
취업지위	취업	2.56	2.97
	실업	1.90	2.29
	비경제활동	2.28	2.59
소득수준	1사분위	2.06	2.47
	2사분위	2.30	2.74
	3사분위	2.69	3.06
	4사분위	2.96	3.26

주 :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됨;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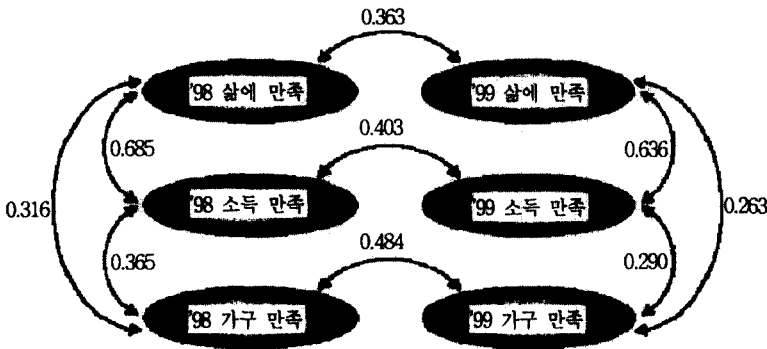
분류할 수 있다.

인구특성에 따른 소득 만족 및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반적 삶이나 가족의 수입에 대하여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수입보다는 전반적 삶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사별이나 이혼보다는 미혼이나 결혼한 유배우자가, 취업자가 실업자 혹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족의 수입이나 전반적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서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소득 및 소득 만족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먼저 가구소득과 소득에 대한 만족 및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림 1]은 이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상관관계 표에서 우리는 두 시기에 걸쳐 수집된 패널조사 자료의 질 및 세 변수 간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99년의 조사자료에서나 1998년의 조사자료에서나 공통적으로 소득이 소득 만족 및 전반적 삶의 만족과 맺는 상관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1999년의 경우 각각 $r = 0.290$ 및 0.263 을 기록했으며, 1998년의 경우에도 $r = 0.365$ 및 0.316 을 기록했을 뿐이다.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상관도는 두 해 모

(그림 1) 소득, 소득 만족, 전반적 삶에 만족 간의 상관관계



주 : 제시된 수치는 두 변수간의 단순 상관계수임.

두 매우 높다(각각 $r = 0.636, 0.685$). 이는 객관적 소득의 절대액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일단 소득에 만족하면 전반적 삶에 만족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만족에 대한 연역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만족이란 내적인 과정이며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분은 매우 적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한다. 쉽게 만족하는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에도 만족하고 전반적 삶에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사실상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고(spurious relationship)보는 것이다. 반면, 만족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에는 연역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성격요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족도에 특정한 객관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하여도 그러한 특정한 조건들이 객관적 조건들 중에서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조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성격 기질적인 특성에 미치는 객관적 조건의 영향력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합치면 객관적 조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Campbell et al., 1976; Diener, 1999). 만족도의 개념이 애매하고 따라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델의 설명력이 낮은 점 또한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분명히 가부를 결론지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소득과 소득 만족 간의 상관도가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상관도보다 일관되게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98년 및 1999년 자료에서 모두 전자는 후자보다 피어슨 상관계수로 0.03~0.05 정도 높게 나타난다. 연역적 과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 옳다면 소득이 소득에 대한 만족과 맺는 관계나 혹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과 맺는 관계나 차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같이 구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대상에 대한 만족도가 건강, 가족 혹은 전반적인 삶과 같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만족도보다 일관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Diener, 1999) 이러한 차이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객관적 조건인 소득의 절대액이 소득에 대한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귀납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림 1]의 가구소득 및 소득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우리는 만족도 간의 시계열적인 상관도, 즉 1999년의 소득 만족과

1998년의 소득 만족 간의 관계나, 1999년의 삶에 만족과 1998년의 삶의 만족 간의 상관도가 의외로 낮은 것을 발견한다(각각 $r=0.403, 0.368$).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이 한 해 동안 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정서의 기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앞으로 패널이 축적되면서 만족도 문항을 이용하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의 소득과 1998년의 소득 간의 상관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며($r=0.484$), 전반적으로 1998년의 조사에서 보이는 변수들 간의 상관도가 1999년의 조사에서 보이는 변수들 간의 상관도보다 일관되게 높다. 1998년의 소득과 1999년의 소득 간의 상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1999년의 경우 1998년보다 소득의 범주를 훨씬 세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소득 범주의 시계열 비교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간의 시계열 상관도가 낮은 문제는 앞으로 패널조사가 계속되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욕구이론에 따르면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에는 정적 관계가 존재하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체감하는 관계가 관찰된다고 한다. <표 2>는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가구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변수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델의 설명력($R^2 = 0.102$)에 비해

<표 2> 삶의 만족에 대한 가구 소득의 회귀분석 결과

	b (t-value)	b (t-value)
절편	1.601 (15.99)	1.813 (14.32)
ln(가구소득)	.212 (15.09)**	-
가구소득	-	.000 (1.24)
연령	.000 (0.23)	.000 (0.31)
성별	.076 (2.09)*	.079 (2.81)*
고졸 ¹⁾	.088 (2.84)**	.090 (3.10)**
대퇴 ¹⁾	.221 (4.40)**	.231 (4.84)**
대졸 ¹⁾	.317 (8.12)**	.320 (10.10)**
취업 ²⁾	.142 (4.03)**	.151 (4.73)**
실업 ²⁾	-.431 (6.47)**	-.440 (7.50)**
R^2	0.148	0.102

주 : 1), 2)는 준거 범주가 각각 고졸 미만, 비경제활동임.

* $p < 0.05$, ** $p < 0.01$ 에서 유의미함.

여 자연대수를 취한 모델의 설명력이 4%포인트 이상 높다. 또한 가구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하지 않은 선형 모델에서 가구소득 변수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이면서 체감하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 회귀 결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삶에 대하여 더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대졸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 변수에서는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자보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며,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자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소득이 같은 수준일지라도 교육수준이 다를 경우에 전반적 삶에 미치는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앞에서 검토한 비교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 수준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경우, 소득의 절대적 효과에 더하여 남들과 비교한 상대적 우위라는 상대적 효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더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3>에서는 교육 및 연령대로 1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평균치와 비교한 상대적 우위의 비율을 나타내는 항목을 포함한 회귀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집단과의 격차 항목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규모와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자신의 소득이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자신과 유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 소득이 가

<표 3> 집단 내 상대적 우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b (t-value)
절편	1.720 (14.33)**
ln(가구소득)	.185 (8.99)**
고졸 ¹⁾	.099 (3.14)**
대퇴 ¹⁾	.235 (4.62)**
대졸 ¹⁾	.337 (8.31)**
집단과의 격차	.000 (1.80) [#]
연령	.000 (0.09)
성별	.078 (2.15) [*]
취업 ²⁾	.150 (4.22)**
실업 ²⁾	-.424 (6.37)**
R ²	0.149

주 : 1), 2)는 준거 범주가 각각 고졸 미만, 비경제활동임.

* p<0.05, ** p<0.01에서 유의미함(양측검증), # p<0.05에서 유의미함(편측검증).

저오는 추가적인 물질적 풍요로 인한 만족에 덧붙여서 주위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우월성으로 인한 추가적 만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계열로 비교할 때 소득의 증가로 욕구가 더 잘 충족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는 절대적 효과를 넘어서, 과거 소득과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이 보다 높다는 비교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 증가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다음의 <표 4>를 보면 삶의 만족도 증가에 미치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소득증가율의 회귀계수는 예측과는 반대 방향의 부호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과거와 비교하여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삶에 만족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표 4> '99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

	b (t-value)
절편	1.166 (11.56)**
'98 삶의 만족도	.240 (17.88)**
ln('99 가구소득)	.174 (11.66)**
'98~'99 소득증가율	-.000 (1.11)
연령	.000 (0.53)
성별	.043 (1.21)
고졸 ¹⁾	.059 (1.94)*
대퇴 ¹⁾	.160 (3.26)**
대졸 ¹⁾	.205 (5.30)**
취업 ²⁾	.120 (3.49)**
실업 ²⁾	-.369 (5.72)**
R ²	0.214

주 : 1), 2)는 준거 범주가 각각 고졸 미만, 비경제활동임.

* p<0.05, ** p<0.01에서 유의미함.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맺는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이 관계에 대하여 대립되는 두가지 이론, 즉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을 대비하여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의 사례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다는 점이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삶에서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다는 우리의 상식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반면, 전자의 경우 비서구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사실로서 아마도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⁰⁾(Diener and Suh, 2000).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이며 체감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이 귀납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삶의 만족에 관한 연역적 이론, 즉 낙관적인 성격 특성으로 인하여 전반적 삶에 만족하고 또 자신의 가족소득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 객관적 조건인 소득이 이러한 만족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대한 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소득수준과 소득에 대한 만족 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 삶이건 소득에 대한 것이건 '만족'이라는 것은 객관적 조건의 영향 못지않게 심리적 요소간의 상호 영향의 부분이 큰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전반적 삶에 만족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인 측면이 더 큰지 혹은 연역적 측면이 더 큰지는 앞으로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비교이론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교육수준에서도 주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소득이 가져오는 육구 충족의 수준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더 만족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인 지위 비교를 하는 기준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가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연구에서 인종집단간 및 거주지역간의 비교에서 이러한 상대적 우월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10)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 조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부정적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시기에 실시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조명한·차경호, 1998 참조).

대비된다(Diener et al., 1993). 반면,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이 높을 경우 현재의 동일한 소득수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삶에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또 다른 비교이론 가설은 본 연구 분석에서 부정되었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욕구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넘어서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가 나아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삶에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소득은 소득에 대한 만족을 거쳐 전반적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득과 소득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단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소득에 만족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도 만족하게 되나, 문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삶의 만족에 기여하는 점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소득에 만족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비교에 민감한데, 비교를 통한 만족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검증되었는데,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욕구만족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비교를 통한 만족의 효과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시계열간 소득 측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득에 대한 만족이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을 보다 정확히 밝혀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조사에서 소득 파악의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앞으로 패널의 횡수를 거듭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소득에 대한 만족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시계열간에 상관도가 높지 않다. 이는 실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서구의 연구에서 사람들의 만족도 보고는 시계열간 및 일시적 기분과는 독립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지적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측정도구의 결함으로 추측된다(Diener et al., 1999).

참 고 문 헌

방하남.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

- 논집』 23권 (특별호) (2000. 12): 133-154.
- 이현송.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7권 1호 (2000. 4): 91-118.
- 조명한·차경호.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1998.
- Andrews, F., and Withey, B.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1976.
- Campbell, A., Converse, P. E., and Rod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and Diener, M.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2) (February 1993): 195-223.
- Diener, E. "The Wealth of Nations Revisited: Income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2) (October 1995): 275-286.
- Diener, E., Suh E. M., Lucas R., and Smith 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3) (March 1999): 276-302.
- Diener, E., and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IT Press, 2000.
- Easterlin, R. A.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dited by Davis, P. A., and Reder, M. W., pp.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Easterlin, R. A. "Will Rasing the Income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1) (January 1995): 35-47.
- Feist, G. F., Bodner, T. E., Jacobs, J. F., Miles, M., and Tan, V.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 (January 1995): 138-150.
- Gitmez, A. S., and Morcoi. G.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urk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 (January 1994): 77-98.
- Headey, B., Veenhoven R., and Wearing. Q. "Top-down and Bottom-up Theories of

-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 (September 1991): 81-100.
- Michalos, A. C.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4) (September 1985): 347-413.
- Shin, D. C., Ahn, C. S., Kim, K. D., and Lee, H. K.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on Korea." *Social Indicator Research* 12 (4) (September 1983): 393-416.
- Tang, Kwong-Leung.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7 (1) (June 1999): 69-96.
- Veenhoven, R.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 (September 1991): 1-34.
- Veenhoven, R., and Ehrhardt, J.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eir Theori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1) (January 1995): 33-68.

abstract

On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Absolute and Relative Theory

Hyun Song Lee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compare the two contrasting theories on life satisfaction; absolute or relative. I could confirm a positive curve-linear relationship of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as in many previous studies. A relative hypothesis saying that one's relative superiority on education could bring about more satisfaction was partly supported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another relative hypothesis saying that income increase could make more satisfaction than income decrease over time on a identical level of income was rejected. This result suggests that income increase can not give more satisfaction in addition to more affluence simply because of the fact that one's current income is higher than his or her previous level of income.